

영화 '기생충'이 던지는 메시지

소득격차로 빈자의 선 넘는 신분상승 더 어려워져

요즘 스포츠계에서는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하고 음악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 '기생충'이 제92회 미국 아카데미(2020)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하여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빈부 계층의 선을 넘는 혁명이 가능?

종교인의 관점에서 현재 영생을 소망하고 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이 되어라"고 한복음 3:5"라는 구원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영화 '기생충'에 대한 감상평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개 눈에는 똥냄새 나는 똥만 보이고 벌과 나비의 눈에는 향긋한 내음이 나는 꽃만 보이듯이, 구세주를 영접하고 구세주의 권능을 목격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영화 '기생충'을 관전한 후에 인상 깊게 다가온 배우는 반지하 집에 사는 기택(송강호)네 가족 가운데 기정(박소담)이다.

상류층의 가족과 하류층의 가족이 사는 집을 계단을 통해서 오고 갈 수 있지만,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의 가난한 집에 내려갈 만한 용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집에 지하실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낸다. 여기서 가난한 하류층이 부자 상류층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로 과외교사, 운전기사, 가정주부 같은 직업을 선택하였다고 봉준호 감독은 설명했다.

기정(박소담)의 인물에 대해서 면면히 살펴보면, 미술대학 지망생으로 나름대로 포토샵 실력이 특출한 점도 있었고 마침 부잣집 박사장(이선균)네 미술 과외 선생으로 취업하게 된다. 글로벌 IT 기업의 CEO 박사장네 막내아들 다송은 엄마에 의해서 컨트롤이 잘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에서 말쑥꾸러기이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다송이 미술 과외 선생 기정이 자신한테 90도 배꼽 인사를 하며 말 잘 듣는



[기생충] 미국배우조합상(SAG Awards) 베스트 앙상블 부문 캠페인 포스터

모습을 사모님 연교 앞에서 보여준다. 현재는 부잣집의 주인이 박사장이지만 미래에는 상속자 다송이가 확실시된다면, 가난한 하류층에 속한 기정이 다송이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빈부 계층의 선을 넘는 혁명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할 수도 있겠다.

종교인의 관점에서 기정이 부모조차 제대로 길들이기가 어려운 천방지축 다송이를 말 잘 듣는 아이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그런데 다송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변했다고 해서 나쁜 아이에서 착한 아이로 개교전선이 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영화 '기생충'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살벌한 생존경쟁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이 세상에는 많은 사이버 교주들이 있다. 교세가 크고 많은 신자를 거느린 교주의 특징이 한결같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기정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하는 비범한 능력을 행사한다. 비근한 예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이버 교주들은 그들이 가장 성경을 잘 풀이한다는 명목으로 불신자의 전도보다 그대도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 포섭하기 쉬운 타 교회의 교인들을 빼내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린다. 이러한 것 거리는 기정이 박사장의 운전기사를 내쫓고 아버지 기택을 그 자리에 취직시키기 위해 차 안에 슬그머니 속옷을 벗어 던

져 놓는 행위와 같다. 마찬가지로 기정이 가정부 문광이 봉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결핵 환자로 누명을 씌어 내쫓고 자신의 어머니 충숙을 부잣집 가정부로 들여오게 하는 점이, 서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병상련과 같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이 눈앞의 이익과 세력확장에만 눈이 어두워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또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짓밟으면서 결국 '아귀다툼하다 산통' 겐다라는 인도 격언대로 비극적인 종말로 끝난다.

최대 최고의 세력을 쌓은 사이버 교주들의 말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철옹성 같은 교세가 세월이라는 긴 시간 앞에 늙어서 힘도 쓰지 못하는 교주를 둘러싸고 교주를 향한 제2인자의 반란 또는 영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교주의 무능함에 저절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사실 영화 '기생충'의 박사장네 부잣집에 기생하는 하류층의 가족은 기택네 4인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박사장네의 가정부로 있는 문광과 지력 지하방커에 숨어 사는 문광의 남편 근세까지, 이렇게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살고 있다. 지하실에서 기생하고 있는 근세의 처지는, 푸른 하늘도 볼 수 없고 슬픈 사람의 노상 방노도 볼 수 있는 기택네 반지하실의 창문과 같은 것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백열전등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세가



똥고에 인디언 화살을 쫓은 박다송은 "일어나라"는 엄마 말을 들은 척만 척함



"어머님, 제 옆에 와서 좀 앉아주세요. 다송이는 올라가 있어."

"박사장님, 항상 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respect; 존경한다는 뜻)!"을 외치고, 계단의 전등 스위치를 박사장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에 맞춰 켜는 모습이, 마치 사이버 교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환호하는 광신자들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계단을 올라가려던 한 가난한 남자가 계단을 오히려 내려가면서 끝나지만..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생충이 한국에서 사회적 혁명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오히려 혁명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혁명은 부유할 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뭘지 파악하기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기생충'은 그런 복잡한 상황을 표현하는 영화 같은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기생충'이 계단에 관한 영화인 것처럼, 성경을 보면 야곱이 꿈에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계단)를 보게 되는데, 그 사다리를 오르려내리락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만이 가능하며 그 층계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창세기 28:11-17). 진실로 현재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린 망각상태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빈부귀천의 계급사회를 부수버리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78>
"여러분이 이긴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서 다 이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다. 이 사람은 칭찬 듣는 것도 바라지 않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된 여러분들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요 소망이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면 이 사람을 울리는 일이지 이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밤이면 밤마다 분신으로 여러분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죄와 상관 없이 살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죄와 상관 없는 이긴 가지가 되어 주기를 이 엄마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건강의 핵심 포인트, 피의 주요 기능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저기 쭈시고 아프다

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증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금방 자가진단을 통해 찾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몸 건강 혈액 건강에 신경 썼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환자들로 넘쳐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존경스런 지적능력과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오래 오래 살고 싶다'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혈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과 생명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경 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뭘지 파악하기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기생충'은 그런 복잡한 상황을 표현하는 영화 같은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사람의 몸에는 약 50 가량의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우리 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반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은 산소 이산화탄소 양분 호르몬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물질을 그것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운반해 줍니다. 우리 몸의 살과 뼈 근육 등은 한순간이라도 혈액이 담당하고 있는 운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 안 가 탈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재빨리 그 부분의 혈관을 좁혀 피가 많이 흐르지 않게 하

면서, 딱지가 생기게 하여 출혈을 막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침입하면 혈액 속의 어떤 세포가 즉각 나서서 잡아먹습니다. 이 세계는 바이러스의 바다입니다. 내인(內因)이든 외인(外因)이든 항원(抗原)에 대해서는 피 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져 싸우므로 우리 몸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든가, 혈액 속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용하여 산·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해 주는 것 따위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분이나 수분 등이 너무 많아도, 또한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컴퓨터가 아무리 많은 정보와 답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몸 안의 보이지 않는 조절 기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위의 세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만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이 잘 유지되어 병 없고 고통 없는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뤘지만, 완전한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상시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일상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진다 아 프고 신음하는 세월 속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주호 기자

고조선 시대의 꽃무늬 와당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고조선 유물의 꽃무늬 와당에 새겨져 있는 고대 히브리어 즉 올드네게브 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모세가 홍해

기적을 표현한 암각화에 새겨져 고대문자가 고조선 와당의 올드네게브 문자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본지 8면 참조

[그림 1]은 꽃무늬 와당의 상단 문양이다. 이 문양이 귀신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귀면와당(鬼面瓦當)' 또는 '짐승얼굴모양 와당'이란 이름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각형 안의 문양은 어떤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명대, 사실은 <야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얼굴 문양에 하나님(יהוה Yahu)을 뜻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와당에 사용된 문자는 [Figure 1-4] 하단의 암각화에

새겨진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יהוה Yahu)' 즉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산지 「하르 카르콤(Har Karkom)」에서 발견된 올드네게브 문자(BC1200)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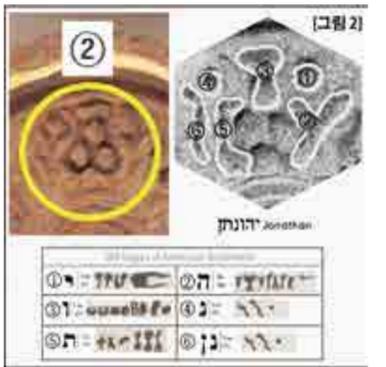
[그림 2]는 꽃무늬 와당의 하단 문양이다. 육각형 안의 문양에 6개의 올드네게브 문자가 조합되어 있는데, 올드네게브의 합자어(Ligatures)로써 '요나단(יהונתן Jonathan)'을 표기한 것인데 이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자해독 방식은 미국 의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의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에 소개된 [Old Negev of American Southwest]의 문자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BC1200년 경 이스라엘의 소라



고조선 천제단 출토된 기와골 끝에 (꽃무늬 와당) 고대 히브리어(올드네게브 문자)가 새겨져 있음

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단지와 민족이 한반도에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지와 민족은 배링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의 올드네게브 문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배재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손성태 박사는 그의 저서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민족이다(멕시코편)』에서 세계 최초로 아메리카 인디언이 한민족이며, 한민족이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후 1000년경까지 약 2000년에 걸쳐 아메리카로 대이동했으며, 이동루트가 알류산열도였고, 절정기는 기원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는 남북 아메리카 모든 지역의 지명, 유물, 인디언 종족 명칭, 풍습, 의복과 장신구, 언어, 천문학과 달력, 짐승, 인디언 고대 기록의 해석 등을 통하여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증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름이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져

도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인디언이며, 몽골계 인종으로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반점인 몽고반점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근래에 미국 인디언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인디언들의 DNA가 아시아 특히 한민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라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져